

# 2040

## 제3편

## 공간구조의 설정

제1장. 공간구조 설정

제2장.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 제1장 공간구조 설정

① 공간구조의 진단

② 공간구조 구상

③ 공간구조 설정



## 1 공간구조의 진단

### 1. 도시 성장과정

#### 가. 시가지면적 변화추이

##### ■ 1950년대 이전

- 광복이전 개항과 조계지를 중심으로 한 신개발지가 형성되어 항만·공업 중심도시로 성장하였으며, 광복 이후 한국전쟁의 전후 복구 및 매립을 통해 성장하기 시작함



인천시가지계획평면도  
(1937)

##### ■ 1950~1970년대

-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유수면매립, 항만 공사, 공업단지 조성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었으며, 1970년대 들어 토지구획정리사업, 공동주택단지 조성, 공유수면매립, 공업단지조성 등 도시계획 정비와 도시개발을 통한 성장이 진행됨



인천도시계획평면도  
(1963)

##### ■ 1980~1990년대

-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대규모 공유수면매립, 남동공단 등 공업용지가 조성되어 도시구조의 개편과 팽창이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에는 주택단지개발사업, 신도시 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 공업단지조성, 항만개발, 인천국제공항이 건설되어 인천시 경계가 확장되고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이 마련됨



1990년대 인천

##### ■ 2000년대~현재

- 2000년대 들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정비사업, 개발사업, 경관사업, 공유수면 매립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항만개발사업, 인천국제공항 개발사업을 통해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거듭남
- 시가지 형성과정을 주거지 성장 관점에서 보면 광복이전 미추홀구, 동구, 부평구 중심에서 1950~1960년대 들어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1970~1980년대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1990년대 이후 연수구, 남동구, 서구 일원으로 지속적인 확장이 진행되었음



2000년대 인천

## 나. 지금까지 도시기본계획의 공간구조 변화

- 『2006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은 목표년도 계획인구 270만으로 1991년 7월 수립되었으며, 2도심, 6부도심의 중심지 체계로 서울대도시권 개발구상에 부합하여 계획됨
- 『2011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은 1997년 6월에 계획인구 300만으로 수립, 중심지 체계는 1도심, 5부도심으로 변경되었으며, 단일 도심기능을 중심으로 부도심을 강화하였음
-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은 2006년 5월 계획인구 310만으로 수립되었으며, 3도심, 5부도심으로 지역별 특화 중심기능을 부여하였음
-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은 2010년 5월 수립되어 계획인구 370만으로 설정되었으며, 1도심, 6부도심, 10지역중심의 중심지체계로 계획함
-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은 2012년 11월 변경되어 당초 2020년에서 계획인구를 340만으로 조정, 1도심, 6부도심, 10지역중심 중심지 체계를 3주핵, 4부핵, 10지역중심으로 변경하여, 경인발전축 중심으로 원도심 재생을 계획함
-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은 2015년 11월 수립되어 계획인구 350만으로 설정, 2개 지역을 묶어 4도심으로, 3부도심, 9지역중심의 중심지체계로 변경하였음

[표 3-1-1] 인천도시기본계획 공간구조 변화 과정

구 분	2006년 인천도시기본계획	2011년 인천도시기본계획
기준/수립년도	1988/1991	1993/1997
계획인구	270 만(가구당 인구 : 3.4)	300 만(가구당 인구 : 2.8)
중심지체계	2 도심, 6 부도심	1 도심, 5 부도심
주요 특징	서울대도시권 개발구상 부합	단일 도심기능, 부도심 강화
공간구조 구상도		

자료 : 인천도시기본계획 각 년도



[ 인천도시기본계획 공간구조 변화 과정(계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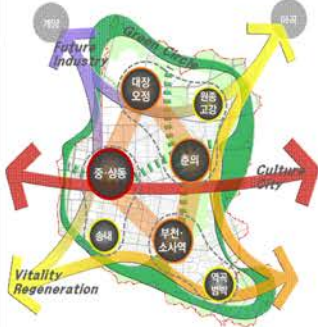

구 분	2020 년 인천도시기본계획	2025 년 인천도시기본계획
기준/수립년도	2000/2006	2006/2010
계획인구	310 만(가구당 인구 : 2.64)	370 만(가구당 인구 : 2.54)
중심지체계	3 도심, 5 부도심	1 도심, 6 부도심, 10 지역중심
주요 특징	지역별 특화 중심기능 부여	통합 일체형 중심지 체계
공간구조 구상도		
구 분	2025 년 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	2030 년 인천도시기본계획
기준/수립년도	2006/2012	2011/2015
계획인구	340 만(가구당 인구 : 2.50)	350 만(가구당 인구 : 2.35)
중심지체계	3 주핵, 4 부핵, 10 지역중심	4 도심, 3 부도심, 9 지역중심
주요 특징	경인발전축 중심 원도심 재생	원도심 및 신도심의 균형발전
공간구조 구상도		

자료 : 인천도시기본계획 각 년도

## 2. 주변도시의 도시공간구조 구상

- 김포시는 1도심 2부도심 4지역중심의 공간구조를 설정하였으며, 양촌·한강신도시 도심을 중심으로 부도심, 지역중심의 다핵연계형 체계를 고려하였음
  - 양촌·한강신도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형 중심지체계로 개편
- 부천시는 1도심 3부도심 3지구중심의 공간구조를 설정하였으며, GTX 역사를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을 통한 권역별 균형발전을 유도하였음
- 시흥시는 1도심 3부도심 1지역중심의 공간구조를 설정하였으며, 시청을 중심으로 중부지역의 도심기능 강화를 위한 개발 구심점을 확보하였음
  - 서해안 신산업축을 중심으로 네트워크형 중심지 체계로 개편

[표 3-1-2] 주변도시의 도시기본계획 공간구조 구상 비교

구분	중심지체계 개편 / 개편방향	구상도
2035년 김포도시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도심 2부도심 4지역중심</li> <li>• 도시공간구조 개편의 한계에 대응하기 위한 도심과 부도심, 지역중심의 다핵연계형 체계로 설정</li> <li>• 스마트자족신도시를 육성하여 도심으로서의 중심성과 첨단·문화·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전략적 거점지역으로 육성</li> <li>• 행정과 복합중심기능, 남북교류 협력강화를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li> </ul>	
2040년 부천도시 기본계획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도심 3부도심 3지구중심</li> <li>• 지역간 연계형 발전축 설정</li> <li>• 중·상동 1도심 체계 유지와 신규개발거점에 따른 3부도심 설정</li> <li>• 지역별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3개 지구중심 설정</li> </ul>	
2020년 시흥도시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도심 2부도심 2지역중심 → 1도심 3부도심 1지역중심</li> <li>• 시청을 중심으로 중부지역에 도심기능을 부여하여 시흥시의 개발 구심점 확보</li> <li>•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으로 인한 신규 주거지와 기존 주거지들을 고려하여 각각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 부여</li> </ul>	

자료 : 각 시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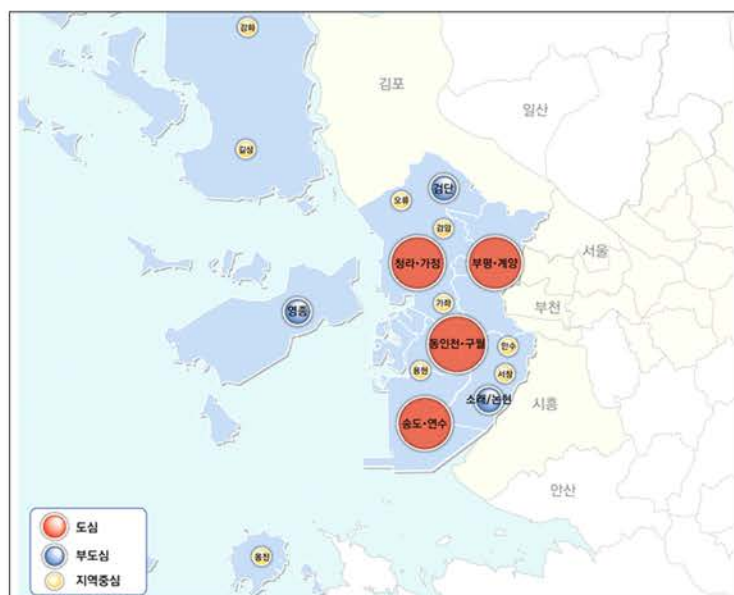
### 3. 2030년 도시기본계획 공간구조 진단

- 기존 『2030년 도시기본계획』의 공간구조는 다핵형 중심지 체계로 4개의 도심 간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나, 지역적 특성이 다른 2개 지역을 하나의 도심으로 구성하고 있어, 도심별 주요 특성 및 중심성 식별이 불분명
- 부도심인 영종(경제자유구역), 소래·논현(관광), 검단(광역생활) 3개 지역의 경우, 4개 도심의 글로벌 도시발전을 위한 지원기능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향후 중심성이 분명한 도심지역을 설정한 후, 해당 도심지역의 중심기능을 일부 분담 및 지원하는 공간적 역할을 고려하여 재설정 필요
- 지역중심의 경우, 도심 및 부도심을 제외한 역세권 및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는 지역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계획에서는 추가적으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함

[표 3-1-3]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중심지 체계

구분	위계	2030년 도시기본계획의 발전방향
4 도심	동인천·구월, 송도·연수, 청라·가정, 부평·계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심기능 차별화 및 상호연계로 도시 중추기능 강화</li> <li>• 원도심 재생 및 신도시(청라, 송도) 발전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및 동반성장 도모</li> </ul>
3 부도심	검단, 영종, 소래/논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도시 발전을 위한 부도심 지원기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종(경제자유구역), 소래·논현(관광거점) 육성</li> <li>- 검단~김포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생활권 기능</li> </ul> </li> </ul>
9 지역중심	오류, 검암, 가좌, 옹현, 만수, 서창, 강화, 길상, 옹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세권 중심으로 지역별 자족발전 가능성 확보</li> </ul>

[그림 3-1-1]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공간구조



자료 :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 2 공간구조 구상

### 1. 기본방향

#### ■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공간구조 구상

- 원도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자족 기능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균형감있는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공간구조 재편
- 국제 도시경쟁력 제고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 지향적 공간구조 설정
- 국제성장축, 미래발전축, 미래 성장동력 창출, 신규 개발사업 및 인프라 확충 등을 고려
- 도시의 개발과 보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적 도시공간체계 마련

#### ■ 도시확장과 원도심 활성화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한 공간구조 구상

- GTX기반 광역교통체계 구축 등 주요 교통 및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이 가능한 도시공간구조 구상
- 원도심과 신도심, 도서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구조 재편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간전략 마련
- 대·내외적 정책 방향과 변화하는 도시형태를 반영하는 유연한 도시 공간구조 구상
-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을 고려한 도시 공간구조 구상

#### ■ 공간구조 재편에 따른 지역 맞춤형 특화 발전 구상

- 원도심 활성화와 신산업 성장 동력 마련을 고려한 도시기능 연계 유도
- 지역 특화발전 구상을 통해 균형발전 및 질적 성장 유도
- 도심-지역중심-일상생활의 중심이 되는 지역 간의 위계를 명확히 하고, 공간·기능적 연계성 제고
- 삶의 질 향상, 생활환경 및 지역여건 변화와 향후 도시성장 등을 고려

#### ■ 주변도시와 연계된 공간구조 구상을 통한 광역연계기점 형성

- 김포시는 검단-김포 간의 광역교통망 확충 등 연계협력사업 추진과 검단일반산업단지와 김포골드밸리와 연계된 산업클러스터 형성
- 부천시는 문화도시 중심과 미래산업성장 및 도시 활력 재생의 3개 축을 설정하여 지역간 연계형 발전축 설정
- 시흥시는 제3경인고속도로를 통한 광역교통 접근성 제고 및 남동·시화반월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기능과 연계한 클러스터 구축
- 동인천-주안-부평-구로-신도림-용산을 잇는 경인선축 및 인천-정왕-안산-수원을 잇는 수인선축 등 광역철도 교통축의 핵심거점이자, 서울·수도권의 글로벌 관문으로서 역할 형성



## 2. 공간구조 대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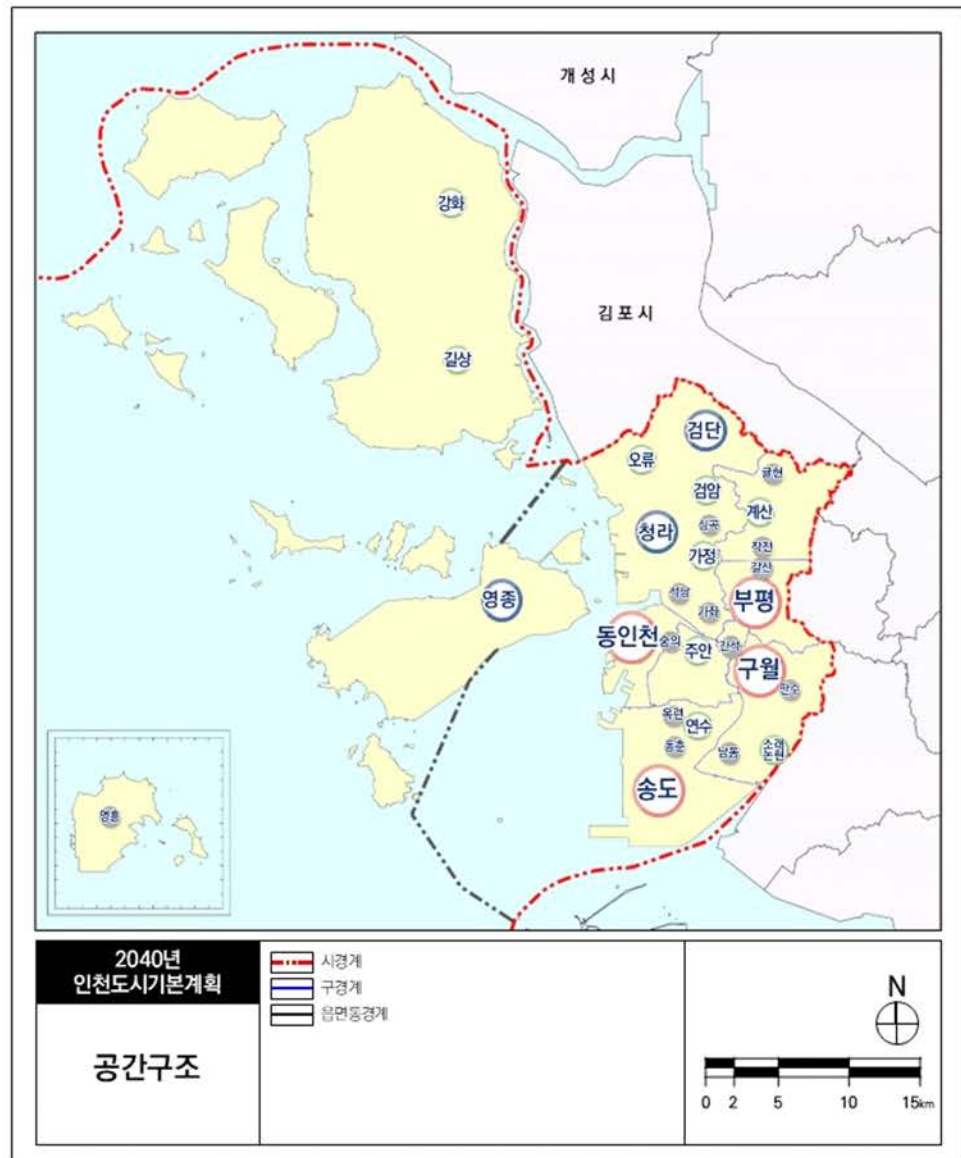
### 가. 변경

- 4도심(다핵형) 중심지체계 : 4도심, 4부도심, 9지역중심, 13지구중심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4도심 기능부여 및 네트워크 강화

[표 3-1-4]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중심지체계

구분	중심지
4도심	구월 / 송도 / 부평 / 동인천 /
4 부도심	영종 / 검단 / 계양 / 청라
9 지역중심	연수 / 소래논현 / 주안 / 가정 / 검암 / 오류 / 계산 / 강화 / 길상
13 지구중심	송의 / 옥련 / 동춘 / 남동 / 만수 / 간석 / 갈산 / 작전 / 골현 / 가좌 / 석남 / 심곡 / 영흥

[그림 3-1-2] 공간구조



## 나. 대안별 검토

- 공간구조의 현황과 생활권, 향후 행정구역 개편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하고, 중·장기적 도시발전 측면에서 장·단점을 비교·분석함
- 중·동구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과 원도심 재생사업 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 GTX기반 광역교통 구축 등 향후 도시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간구조는 다핵 분산형 중심지 체계를 반영하며, 4도심을 설정
- 주요 역세권 일대 지역으로 도심과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이 용이한 지역을 부도심으로 설정하며, 주거기능과 근린생활 단위의 지역을 고려한 지역중심지 설정 관련 내용이 반영된 변경안을 선정함

[표 3-1-5] 공간구조 대안 비교검토

구분	기정		변경	
기본 개념	3 도심 중심지체계		4 도심 중심지체계	
중심지 체계	3 도심	구월 / 송도 / 부평	4 도심	구월 / 송도 / 부평 / 동인천
	5 부도심	영종 / 청라 / 계양 / 검단 / 동인천	4 부도심	영종 / 검단 / 계양 / 청라
	8 지역	연수 / 주안 / 계산 / 가정 / 검암 / 오류 / 강화 / 소래·논현	9 지역	연수 / 소래논현 / 주안 / 가정 / 검암 / 오류 / 계산 / 강화 / 길상
	12 지구	심곡 / 송의 / 학익 / 간석 / 가좌 / 만수 / 동춘 / 서창 / 남동 / 굴현 / 길상 / 영흥	13 지구	송의 / 옥련 / 동춘 / 남동 / 만수 / 간석 / 갈산 / 작전 / 굴현 / 가좌 / 석남 / 심곡 / 영흥
발전 방향	• GTX기반 광역교통중심의 3도심 및 공항철도, 인천 지하철 중심 부도심 연계 강화		• 지역 균형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심 기능 활성화 도모 • 중심지 간 기능적·물리적 네트워크 강화	
장·단점	• 도시공간 주요지표, 인구이동, 교통체계 및 SOC접근성 등을 고려한 중심지 위계 설정 • 서북부 발전 가능성 등 미래 도시공간 발전 방향에 대한 대응력 약화 우려		• 도시 내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도심 간 기능을 배분하여 지역 균형 발전 유도 • 다핵형(4도심) 도시구조는 지역 간 연결성 확보를 위한 연계 계획 미흡할 경우, 지역 간 단절을 유발할 가능성 높음	
종합 의견	•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기능의 회복 및 강화를 도모하고, 주요 도심지를 지원하는 부도심과 네트워크 체계 구축이 가능하며, 인천시의 지역별 특성과 주요 정책적 우선순위와 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핵 분산형 공간구조인 4도심 4부도심 9지역중심으로 변경안을 선정함			
선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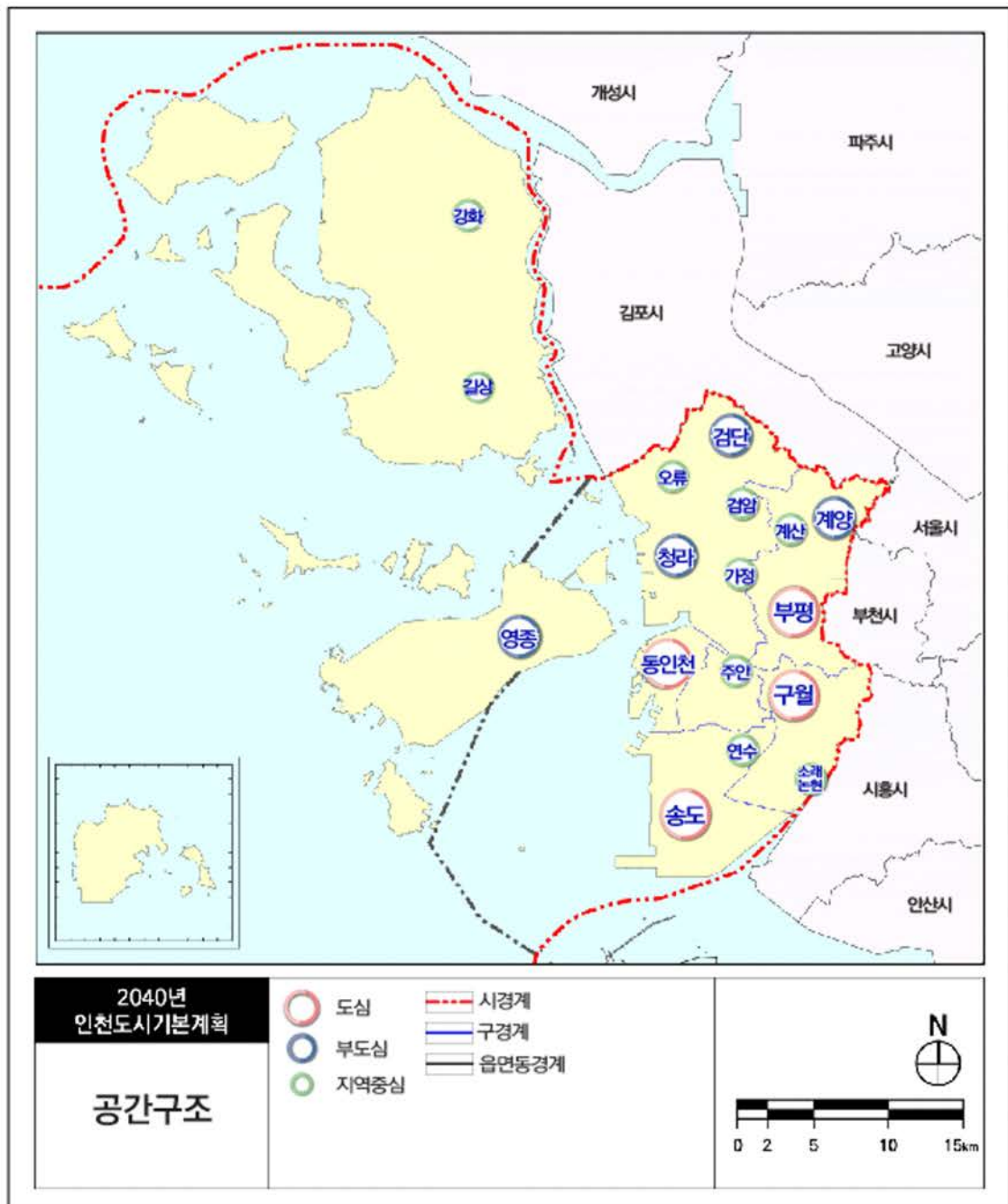
### 3 공간구조 설정

#### 1. 공간구조 설정

##### 가. 중심지 체계

- 4도심 4부도심 9지역중심의 중심지 체계 설정

[그림 3-1-3] 2040인천도시기본계획 공간구조



## 나. 중심지별 특성화 방안

- 중심지별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기능을 특화하고 주변 중심지와의 상호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함
- 도심의 경우, 구월은 GTX 역사 중심의 공공행정 및 복합환승 기능을 수행, 송도는 산학연 연계를 바탕으로 국제 업무 중심 강화, 부평은 입지/교통/군이전적지 개발과 연계한 상업중심 강화, 동인천은 역사/문화/관광/신산업 특화를 주요기능으로 설정
- 청라는 국제금융·업무/문화기능 특화, 영종은 해양레저관광과 항공 산업의 복합도시 조성, 검단은 서북부 문화, 교육 중심 공간 조성, 계양은 동북부 행정·업무·상업 기능을 강화함
- 주안 등 지역중심은 중심지별 상업·업무·주거의 기능강화를 중점으로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심곡 등 지구중심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업, 업무, 공공서비스 등 서비스 시설을 집약하여 콤팩트 시티로 조성함

[표 3-1-6] 중심지별 특성화 및 주요기능

	구분	중심지	향후 개발방향
도심	지역균형 발전과 GTX 기반 광역교통 중심의 상업·업무 중심기능	구월	GTX 역사 중심의 공공행정 및 복합 환승 기능
		송도	산·학·연을 연계한 국제 업무 중심 강화
		부평	입지/교통/군이전적지 개발과 연계한 상업 중심 강화
		동인천	역사 / 문화 / 관광 / 국제업무·국제교류 기능 특화
부도심	공항철도 및 인천지하철 중심으로 지역 특화기능 부여를 통한 발전 도모	청라	국제금융·업무/문화 기능 특화
		영종	해양레저관광과 항공 산업의 복합도시 조성
		검단	서북부 문화, 교육 중심 공간 조성
		계양	동북부 행정·업무·상업 기능 강화
지역중심	상업·업무·주거기능 활성화를 통해 자족성 강화	주안	공유오피스 등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뷰티산업 특화
		소래/논현	수산업 거점 및 관광중심지로 육성
		연수	남부권 상업·문화기능 강화
		검암	서북권 주거·업무 기능 강화
		오류	서북부 산업단지 종사자 주거조성
		계산	동북부 행정·업무·주거 기능 강화
		가정	서북권 상업·업무 기능 강화
		강화	남북경협 중심 및 소통 거점
		길상	강화남단 국제·업무·상업 기능 강화
지구중심	주거 및 생활 SOC 등 일상생활 중심 기능 강화 및 근린생활 기반 조성 중심	송의, 오련, 동춘, 남동, 만수, 간석, 갈산, 좌전, 굴현, 가좌, 석남, 심곡, 영흥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업, 업무, 공공서비스 등 서비스 시설을 집약하여 콤팩트 시티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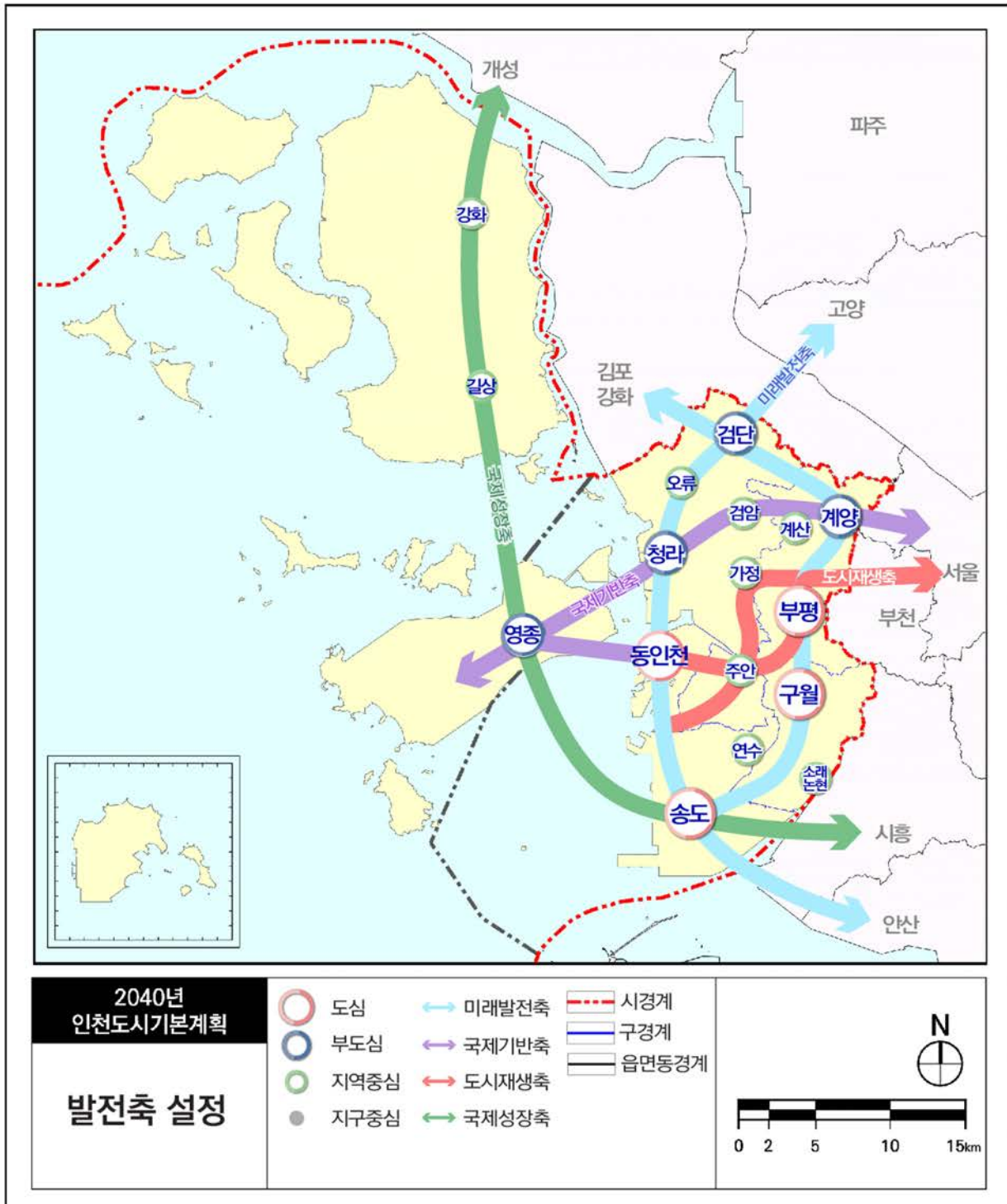
## 다. 발전축 설정

- 도시 발전축은 철도 및 광역도로 중심의 지역 연계를 위해 4개의 발전축을 설정
- 미래발전축 : 송도를 중심으로 동인천~청라~검단~고양, 구월~부평~계양~검단~김포~강화로 이어지는 교차·순환형 미래성장축을 설정, 도시공간의 내·외부를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미래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함
  - 안산 ~ 송도국제도시 ~ 인천항 내항 ~ 청라국제도시 ~ 검단신도시 ~ 고양 ~ 남동국가산단 ~ 부평국가산단 ~ 계양테크노밸리 ~ 김포
- 국제기반축 : 인천의 입지적 강점 및 국제, 해양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을 연결하는 국제금융·업무/문화 기능 강화 축을 설정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함
  - 영종하늘도시 ~ 청라국제도시 ~ 검암역세권 ~ 계양테크노밸리 ~ 서울
- 도시재생축 : 경인선축(동인천~구월~부평~부천), 인천대로축(인천항 내항~주안~가정~서울)의 2개 재생축을 설정하여 도심 및 지역산업 등 도시재생을 통한 수도권 서부권 중심지 기능을 강화함
  - 동인천 원도심 ~ 주안국가산단 ~ 구월원도심 ~ 부평역세권 ~ 부천
  - 인천내항 ~ 인하대 일원 ~ 인천대로 ~ 서울
- 국제성장축 : 송도~영종~시흥의 바이오 클러스터와 강화 스마트농업을 연결하는 축을 설정하고, 인천도심과 연결성을 확보하여 공항경제권 거점 발전 연계 도모
  - 시흥 ~ 송도국제도시 ~ 인천대교 ~ 영종국제도시 ~ 강화 북도~강화 기반시설 ~ 강화교통 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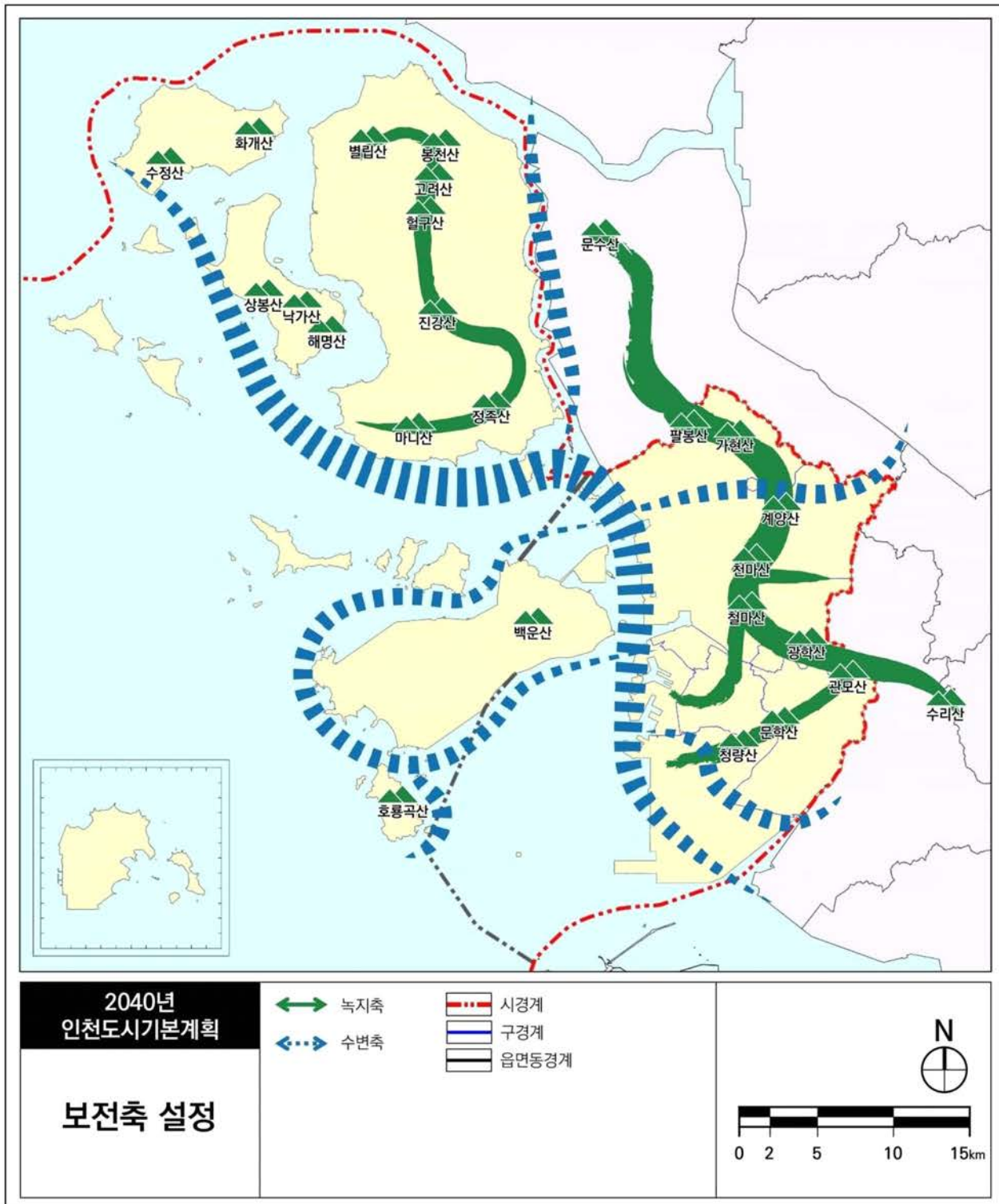
## 라. 보전축 설정

- 녹지축 : 한남정맥을 주축으로 설정하고 강화지역 산림과 관모산~청량산을 연결하는 2개의 부축과 인천대로 상부 공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내 단절된 동서 녹지축을 강화하고, 생태·보전축 설정으로 단절된 녹지 연결 및 개발과 보전의 조화 유도
  - 주축 : 한남정맥(문수산~필봉산~가현산~계양산~천마산~철마산~광학산~관모산~수리산)
  - 부축 : 강화지역 산림(별립산~봉천산~고려산~혈구산~진강산~정족산~마니산)  
관모산~문학산~청량산  
인천대로 ~ 경인고속도로 상부
- 수변축 : 서해안을 주축으로 하고 영종도 수변, 경인아라뱃길, 강화도 수변, 송도~소래, 무의도 및 교동도 수변 부축을 연결하여 수변의 보전 및 해양친수공간 활성화를 유도하고 녹지-수변의 그린 네트워크를 강화함
  - 주축 : 서해안
  - 부축 : 영종도 수변, 경인아라뱃길, 강화도 수변, 송도~소래, 무의도 및 교동도 수변

[그림 3-1-4] 발전축 설정



[그림 3-1-5] 보전축 설정



## 제2장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① 생활권 설정

② 인구배분계획





## 1 생활권 설정

### 1. 기본방향

- 인천광역시의 발전과정, 발전축, 보전축, 도시의 기능 및 토지이용, 주거,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 지역특성에 따라 설정
- 공간구조 상 중심지 위상과 영향권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생활권별 생활SOC 및 기반시설 등의 적정 배치를 통해 도시기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설정
- 2030년 도시기본계획과의 연속성을 위해 기정 생활권 계획을 반영하고, 행정구역별(군·구) 일상생활 영향권을 고려하여 설정
-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발전,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 마련에 중점을 둔 생활권 설정

### 2. 2040년 생활권계획 배경

-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은 광역생활권을 설정하여 타 지자체(김포, 부천, 시흥)와 생활권별 발전전략을 연계하였음
- 자연·물리적 환경여건과 함께 기존 공간구조도시공간구조와 기능·영향권, 토지이용 패턴, 도시성장과정 등의 지리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 7개 생활권 설정, 3개의 광역생활권을 설정하였으나, 장기적으로 예측되는 미래도시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심지 체계의 재조정이 필요

[표 3-2-1]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생활권 계획		
	광역생활권 (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포·김포</li> <li>• 부평·부천</li> <li>• 소래·시흥</li> </ul>
	권역생활권 (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부생활권</li> <li>• 남부생활권</li> <li>• 서북생활권</li> <li>• 동북생활권</li> <li>• 영종생활권</li> <li>• 강화생활권</li> <li>• 옹진생활권</li> </ul>

### 3. 생활권 설정

#### 가. 설정기준

-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에서는 4도심 4부도심 9지역중심 13지구중심의 다핵 분산형 중심지 체계를 공간구조로 설정하여, 4도심 공간구조 및 지역특성을 고려
- 또한, 9지역중심, 13지구중심의 공간구조 설정으로 지구중심의 기능이 구체화되는 지역 생활권 계획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중심 지역을 반영한 생활권 계획 수립
- 강화, 영종, 옹진의 3개 권역 생활권 구분은 기존 생활권계획을 유지하면서 생활권별 발전방향에서 미래비전과 공간구조 특성을 반영하여 개편

#### 나. 생활권 설정

- 생활권은 다핵 분산형 중심지 체계인 4도심 4부도심 9지역중심 13지구중심을 반영하고 지역별 특성화 및 주요기능 등을 고려하여 8개 권역생활권으로 설정함
- 중부 권역생활권은 인천 내항 재개발 및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심기능 특화를 통해 구월과의 종속성을 해소
- 서남권역생활권과 동남권역생활권은 행정자료 취득의 용이성과 행정체계에 따른 도시관리 및 모니터링을 고려하여 동일한 행정구역으로 설정
- 동북권, 서북권, 영종권, 강화권, 옹진권은 2030년 도시기본계획상의 생활권을 유지함

[표 3-2-2] 생활권별 조정 방향



권역 생활권	행정구역	인구 <sup>1)</sup> (만명)	설정 방향
중부	동구, 중구(내륙), 미추홀구	52	• 인천내항 재개발 및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심 기능 특화를 통해 구월과의 종속성 해소
서남	연수구	37	• 행정자료 취득의 용이함과 모니터링을 감안하여 동일한 행정구역으로 설정
동남	남동구	53	• 행정자료 취득의 용이함과 모니터링을 감안하여 동일한 행정구역으로 설정
동북	부평구, 계양구	81	• 2030년 도시기본계획상의 동북생활권 유지
서북	서구	54	• 2030년 도시기본계획상의 서북생활권 유지
영종	중구(영종)	9	• 2030년 도시기본계획상의 영종생활권 유지
강화	강화군	7	• 2030년 도시기본계획상의 강화생활권 유지
옹진	옹진군	2	• 2030년 도시기본계획상의 옹진생활권 유지

주1) 통계연보, 인천광역시, 2020년

#### 다. 생활권 설정 비교 배경

- 철도 및 광역도로 중심의 4도심 특성상 도심과 부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의 위상과 영향력 증대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9개 권역생활권 분류가 적합함
- 조정된 9개 권역생활권은 기정 생활권계획을 유지하면서 4도심 다핵구조에 적합하고 생활권별 계획 및 인구, 계획지표 등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함
- 생활권별 계획으로 타 지자체와의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하고, 각종 행정 자료 취득이 용이
- 향후 행정구역 개편(2026. 6.)과 연계하여 아라뱃길 북부 검단지역에 대한 생활권계획 검토

[표 3-2-3] 생활권 설정 비교검토

구분	2030 년 도시기본계획		2040 년 도시기본계획	
생활권 설정	3 광역 생활권	검단·김포, 부평·부천, 소래·시흥	8 권역생활권	서북권, 동북권, 중부권, 동남권, 서남권, 영종권, 강화권, 용진권
	7 권역 생활권	중부, 남부, 서북, 동북, 영종, 강화, 용진	-	-
주요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물리적 환경여건과 함께 도시공간구조와 기능·영향권, 토지이용 패턴, 도시성장 과정 등의 지리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li> <li>• 거주주민의 활동영역과 생활패턴을 반영한 기존 기본계획(변경) 기준 유지</li> <li>• 7개 생활권 설정, 광역생활권을 설정하여 생활권별 발전전략과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구역별(군·구) 내부 통행패턴을 고려한 연계성과 종속성 고려</li> <li>• 원도심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중부권 도시위상 강화</li> <li>• 공간구조 상 중심지의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하여 군·구 행정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8개 생활권으로 설정</li> </ul>	
생활권 설정(안)				

[그림 3-2-1] 생활권 계획도





## 2 인구배분계획

### 1. 인구배분 기준

- 인천광역시 생활권별 자연적 증가인구 및 타 시·도간 유입인구인 사회적 증가인구를 합산하여 산정
  - 생활권별 장래인구추계에 최근 5년간 전출입구비율을 계상하여 자연적 증가인구 추정
  - 해당 생활권내 사업 유형별 외부유입율을 적용하여 사회적 증가인구(가능유발인구) 추정
- 급격한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생활권에 대해 인접생활권의 증가 인구를 조정 반영하여 원도심의 과도한 인구감소 최소화 및 균형발전 도모
  - 인구증가 생활권의 10%를 인구감소 생활권으로 배분

### 2.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 ■ 생활권별 인구현황

- 생활권별 현재 인구는 동북권이 815,048인으로서 전체 인구의 2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북권 544,556인(18.4%), 동남권 532,704인(18.0%), 중부권 519,965인(17.6%)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인구밀도는 2,781인/㎢이며, 생활권 중 중부권이 11,163인/㎢으로 가장 높고 강화, 옹진이 각각 168인/㎢, 119인/㎢로 가장 낮음

[표 3-2-4] 생활권별 인구현황

생활권	세 대*	인구(인)*		면 적(㎢)		인구밀도 (인/㎢)
		인구수(인)	비 율(%)	면 적(㎢)	비 율(%)	
계	1,238,710	2,957,026	100.0	1,063.26	100.0	2,781
중부권	237,180	519,965	17.6	46.58	4.4	11,163
영종권	41,433	88,459	3.0	125.74	11.8	704
서남권	140,700	366,550	12.5	54.95	5.2	6,671
동남권	221,455	532,704	18.0	57.02	5.3	9,342
동북권	335,134	815,048	27.5	77.58	7.3	10,506
서북권	217,887	544,556	18.4	117.09	11.0	4,651
강화권	33,232	69,178	2.3	411.41	38.7	168
옹진권	11,689	20,566	0.7	172.90	16.3	119

주\*) 세대 및 인구는 외국인 제외  
자료 : 통계연보, 인천광역시, 2020년

### ■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 생활권별 인구배분 결과 2040년 계획인구는 중부권 56만 명, 영종권은 15만 명, 서남권 45만 명, 동남권 59만 명, 동북권 80만 명, 서북권 64만 명, 강화권 9만 명, 옹진권 2만 명으로 배분함
- 현재 인구 대비 2040년 계획인구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 예측된 생활권은 서북권으로 10만 명 증가한 64만 명으로 예측됨
- 생활권별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 인천시 계획인구 총량을 유지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구배분계획을 조정 가능하며, 다음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능토록 함
  -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의 30퍼센트 내에서 생활권간 조정

[표 3-2-5]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생활권	2020 년 (현재)	계획인구(만인)				증감
		2025 년	2030 년	2035 년	2040 년	
계	295	312.3	324.3	329.7	330.0	▲ 35.0
중부권	52	52.9	54.1	55.7	55.8	▲ 3.8
영종권	9	12.3	13.9	15.0	15.3	▲ 6.3
서남권	37	38.8	42.6	44.5	45.4	▲ 8.4
동남권	53	55.8	57.8	58.5	58.7	▲ 5.7
동북권	81	84.3	83.0	81.2	79.6	▼ 1.4
서북권	54	58.8	63.1	64.4	64.3	▲ 10.3
강화권	7	7.2	7.8	8.2	8.6	▲ 1.6
옹진권	2	2.1	2.2	2.4	2.5	▲ 0.5

[그림 3-2-2]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도

